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
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
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
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본필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형상 차별두면 부처님 법 못 꿰”

17면에서 계속

않은게 아니고 서도 선계 아니고,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 자체가 그렇
지요. 그러니 어디 문 열 자리가 있고 문
닫을 자리가 있으며 동서 남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깨우쳤다 못깨우쳤다
라는 언어도 이렇을 뿐이지요.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거지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그냥 한 생각으로 다 건지시
고 나온 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기에 말인데 '이렇고' 하는 공부와
는 일치가 되면서도 일치가 안 되지요.

지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번
연히 내가 이렇게 나온 줄을 알면서 이렇
고하고 있으면 될까요? 불과 돌이 부딪
쳐야 불이 번쩍 나지요? 그런데 양손에
돌을 들고 이게 뭐할 할 거물이 있었습
니까? 더구나 남이 준 걸 들고서 말합
니다.

예전에 세존께서 화두 주는 걸 보았
습니까? 그러기에 무조건하고, 내가 들어
가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
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라 사방이 특
터진 것이나 자기가 자기를 믿고 말
고 관하라 이겁니다. 요즘처럼 헛바퀴 돌
듯 돌아가는 세상이 이렇고 하기 이전에
내가 던져보고 내가 지켜보고 내가 실험
하고 체험해야 하겠지요.

이렇고 화두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예
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다르다 이 말
입니다.

비구·비구니 차별 있는데...

문 부처님 법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남녀 구별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깨우치지만 하면 부처님과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율법에 따르면 80세 비구나라도
어린 사미에게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의 비구
니 스님들은 금생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남자의 몸을 받아서 성불하기를 발원하
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재세시에 여성의 출가를 꺼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비구·비구니를 차별하는
중단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실텐데 그 점
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요. (이제영)

답 항상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끼
리의 만남도 그렇고..., 연방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
슨 차별이 있느냐? 여자를 만났을 땐 여
자의 하나되고 남자를 만났을 땐 남자가
고 하나되는 법인데 구태여 남자 여자
차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의 법
에서도 잘나잘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
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냥 역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거기에 맞춰서 응하고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여법을 들고 돌면서 전생에
뉘는 안 되었겠습니까? 어머니도 됐고
아버지도 됐고 비구도 됐고 비구니도 되
었을 텐데... 그래서 비구 노릇도 비구니
노릇도 돌 아나게 할 수 있으면 그 뜻
을 모르니까, 지금 젊어지고 나온 자기
전생을 모르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
할 수가 없어요.

아, 저 파리를 보세요. 구더기가 파리
가 되었는데 그 파리가 구더기 적의 생
을 안 가지고 나온게 아니지요. 즉 파리
이자 구더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
리만 득세를 하고 구더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를 맞출
수 있으며 자기의 생산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산처에서는 비구

도 비구니도 다 요리해 낼 수 있는, 말하
자면 한군데에서 비구 비구니가 난다 이
겁니다. 그렇게 한군데서 나는 법인데 어
째서 비구 비구니가 다르냐는 겁니다. 모
습이야 다를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마음
내는 것도 돌이 아니거든 어째서 달라
요?

부처님 법에서 비구 비구니가 나는 것
은 비구를 알아야 비구니를 알고 비구니
를 알아야 비구를 알겠기에 한군데서 다
남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파 마늘도 있어야 하고
배추 무우도 있어야 하는데..., 그릇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는데 파는
파요, 마늘은 마늘이다 한다면 어떻게 김
치라 하겠습니까? 설사 김치를 담갔
해도 또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아는 것이라
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금강경>을 달달 외었다 하
더라도 율법만 알아서 이 물건이 어떻
다, 저 물건이 어떻다고 한다면 정작 무위
법의 뜻은 몰라서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
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법을
해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진짜
설법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대에 떨어뜨리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제일이라 한들 땅이 없
다면 하늘이란 소리를 못 들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서 만물을 길러
내기에 모두를 합쳐서 '원통'이라 그랬
는데 거기서 뭘 추려내면 어떻게 원통
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고 어떻게 말
하고 사람사는 이 세상이 부처님 법이라
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그 가르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애정이 많고 착
이 많아서 그것을 때려낸 남자보다 어
려울 것이라 하셨는데 재세의 전통때문
에 그리하셨을 뿐이지 여자는 성불하지
못하리라는 법을 설하셨던가요?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도 대통령 하는



그림·최주현

서는 불을 켜다 끈다는 말이 없어요. 켜
으면 좋겠다, 혹은 불을 끄면 좋겠다
해도 그런 언어를 모릅니다. 그렇듯이 자
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가 없습니다.
쓰고 안 쓰는 것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
지요. 그러나 자기가 육신을 재워놓고 밤
에 다니든 육신을 끌고 낮에 다니든, 자
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고 실 사이 없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대
로 진리요 참선이다, 자고 깨고 이게 다
참선이다 이겁니다.

다만 자기 생각에 끌어졌다고 하니
끌어졌다고 하는 것이 싫은 끌어졌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다
끌어졌다고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탐 돌이를 하라고 합니

것도 법이다 하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
겠습니까? 그러니 모든게, 삶은 것 좋은
것 아픈것 안 아픈 것이 다 한마음 자리
에서 나온다는 걸 믿고 그 한구멍에
놓고 관하세요. 지혜가 모자란다 아니
하는 것도 다 놓고서 말입니다.

부처님 경지 알고 싶습니다

문 부처님의 대원경지가 어떤 것인
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화
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말
로써 하기에 그렇겠지만 그대로 법문이
가야하겠기에 여쭙니다. (윤형준)

답 닦지도 않고서 그런 것부터 생각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사람이란 누구

돌과 돌이 부딪쳐야 불이 번쩍이듯 '이렇고' 하기전에 내가 던져보고 지켜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다. 그런데 사실은 한순간도 쉬지않고 탐
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게 다 탐
돌이가 아니고 뭐니까? 아, 죽었다고 했
는데 또 돌아서 나오니 어디 한군데 끌
어진 데가 있어야지요.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해만 해도 안되고 이론적으로 알기
만 해도 안됩니다. 맛을 보아야 하지요.
요맛조맛 천차만별로 맛이 나는데 그 맛
이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맛입니다.

법문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문 매번 법문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문 특별히 의심나는 것도 없고 스스
로 만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
혜가 모자란 탓인지요?(서은경)

답 내 말을 그냥 들어 넘기고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

나 억급 전부터 자기의 습을, 일종의 '중
문서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짚어지고 살
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그 경지는 이런 중문
서가 달기만 하면 태버리는 그런 이치가
있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따로 높은 경지
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
나 자기를 알면 그 경지가 높은 것도 낮
은 것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
로구나 하고 뚜렷이 알게 될건데 말입
니다. 그렇게 나한테 있는 걸 알면 바로
남과 내가 돌이 아니라고 또 나와 더불어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
런다면 빛이 격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말로 해서, 물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화통하게 설명했다 해
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습
을 떨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습이 있기에
인간이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망상이, 습
이 실은 망상이 아니요 습이 아니다 하
겠지만 그 습이 있기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문이 보이질 않는 겁
니다. 문이 본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심에서 나오는지 일심에다
놓아라, 놓으면 현현히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는 점점만 하면서 돌아가면 될
것을..., 그러니 말이 무슨 필요하겠습
니까?

불교·기독교 가르침 같나요

문 제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기
독교를 믿는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
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다른 지는 몰
라도 가르침은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같다고 하면 절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도 같은지요? (홍순경)

답 바닷물이나 호수의 물이나 물은
다 같은 물입니다. 크기는 엄연히
다르지만요.

또 무우 배추를 버무려서 김치를 담
근다고 할 때 재료는 같아도 솜씨에 따라
김치 맛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같다 아니다, 그런 것을 떠나
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유익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행을 해야하지요.

같더라도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
라 쓰는 도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취지가 아마도 일부
타종교인들의 해탈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 하나도 걱정되지 않
으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니게 모두를 참작하게,
지혜롭게 마음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속을 끊임 사람같으면 우리
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눈하나 깜짝
안하고 지적이 못어 넘칠 수 있는 사람
은 이 한 주먹 퍼면 깊은 데서, 한 주
먹 퍼면 얕은 데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갖게 될 겁니다.

“마음·생명을 남녀로 구별할 수 있나요”

“모든게 ‘일심’에서 나오니 거기 놓고 관해야”

세상이고 살림으로 말하면 옛날 속담에
과부 허리 춤은 온전이 서말이고 흠아비
허리 춤은 이가 서말이라고 했듯이 살림
도 잘하고...

여자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그렇
듯이 어머니 바탕을 지니고 나왔거늘 그
어머니 바탕이 싫다, 못났다고 한다면 어
떻게 개공이 됩니까?

여기 물김치 그곳이 있는데 그곳과 물
이 어떻게 다르니 이겁니다.

지·수·화·풍 사대 중에 한가지라도
배놓어서는 안되고 다 갖춰서 생명이
생겼고 모습을 바꿔가며 예까지, 인간까
지 진화되어서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지
한 장 사이라고, 마음 한번 틀리는데 달
렸거늘...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찍 죽
든 늙어죽든 다 죽어지면 다 늙었건만
그걸 모르면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살던 차원, 애로 살던 차원을 다 냐다 하
면 무슨 차별이 있느냐, 모습만이 여자인
지 마음이 남·여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비구가 집을 비워놓은 빈 집
이라면 비구니가 비구가 되어서 그 속으

로 들어가면 비구지 뭐가 다른가요? 천
너가 사리불이 되고 사리불이 천너가 되
고..., 자연스럽게 무위법을 쓰는데, 이
물건 이게 공해서 사방을 왕래하는데 그
게 어째서 비구 비구니 모습을 가지고
한 얘기냐 이거죠.

그냥 흙은 흙대로 쓰고 물은 물대로
쓰고 불은 불대로, 바탕은 바탕대로 응
도 다양하게 쓸 뿐이죠, 이걸 다 버린단
면요. 다 버렸는데 남자 여자를 따져요?
분별부터 놓아라, 너부터 버려라 아닙
니까?

그리고 자기가 수없는 나날들을 거
들거들 살아 왔고, 그걸 한번 쳐다보았
을 때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고,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틈에 비구 비구니 찾을 겨를이 어디 있
단단가요?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는 말
을 하는 것도 참 대수롭지 않죠. 너무나 당
연하기에 '애'이 그까짓 건 말해서 무얼
해'할 뿐이죠.

또 다음 생을 기억한다지만 다음 생에
뭐가 될지...,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해요?
다음에 내가 구더기가 된다, 남자가 된
다, 무슨 성불을 해서 보살이 된다, 이런
마음 갖는다면 그건 절대 금물이죠. 뭐가
됨을 어떤가요. 심세가 공한 줄 알아야
지금 앉은 자리에서 끝간데 없이 수천
수만가지로 마음도 내고 다 해낼 수 있
죠.

그리고 그 울장에 있다는 얘기는 난
깨달은 사람의 얘기라고 보는데 계율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여자의 입장, 그
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내주고는 빈 겁질만 남는 그 끈끈한 애
정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요 불
다. 미물까지도 제 속을 파 먹이고 겁질
만 남는 모성애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걸
떠 버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모성
애를 오히려 하대를 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어렵다는 얘기가지 하대하

리는 말은 아니지요.

남보고 비구니가 어찌고 한단데 그
야 비구니 비구니지요. 모습이 비구니
까, 하지만 그 비구니라는 모습 속에 있
는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를 꿰뚫
어 본 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수 있다면 나도 볼 수 있을 게
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이 아니라는 걸
알 게다 이거죠.

잠자면서도 참선하고 싶어요

문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잠을 자
면서도 늘 참선을 할 수 있을까 생
각해 보았습니. 그러다가 불현듯 '아,
잠을 자면서도 내가 자는게 아니고 주인
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점이 매우 궁금
했는데 이게 바른 깨달음인가요? (박시현)

답 깨달음인가 물으시는데 깨달음이
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
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이 몸은 내 마음의 수레입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이지요. 그러나 주인
이 차를 끌고 다니든 세워놓든 제 마음
대로 이지요. 끌고 다니며 일을 보든 세
워놓고 나가다니며 이 일 저 일을 보든
말입니다.

몸에 안그러든가요? 이 몸통이는 재워
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
러니 꿈이 생기고 생각이 꿈이라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든 놓고 다니든 그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지 육신이 하는게 아니
지요. 몸통이는 마음을 따라다니다가 때
가 되면 합니다. 그러나 혼백은 자질 않
지요. 그러기에 잔다 안 잔다 할게 없
지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부처이고 마음을
뒀다 하면 법이요 활용입니다.

애기 하나 할까요? 어떤 나라에선 함
상 불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 볼 생각도 못했다면 그냥 귀만 남았
졌군요.

선정과 지혜란 말 아시죠? 선정을 이
본마음 자리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활용
을 뜻합니다. 돌이 아니지만 말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
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
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또 살아가면
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 내가 움직이
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내
몸 하나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
습니까?

물론 부처님 법은 그대로, 우리가 아픈
것도 법 안 아픈 것도 법, 죽는 것도 법
사는 것도 법이라 해서 이것이야 바로 진
리다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노라면 남한테 짓밟히기도 하고 가장
이 화복치 못한 일도 있고 이윽과 싸움
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의 원인이 바로 자기인 줄 알면, 자
기 탓인 줄 알면 지혜롭게 되잖아 생각할
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몸이 아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처
님께서는 그것도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스스로 아
픈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그게 방편
이지만 방편을 통해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이 육신은 바로 내 주인
의 것, 주인 의지로서 주인에 의해 형
성되었으니까 주인에 의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변질되고 부서집니다. 그러
나 몇 년씩 아프다가 웃을 벗기보다 생
동력있게, 나도 고통받지 않고 주변도 고
생시키지 않으면서 가는 도리도 있고, 그

**삶은 결코 썩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행 스님의 육성 법어집

151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02)737-0696

협진 김재영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8동 1106호